



## 미 증시, 인플레이션 둔화 기대감, 반도체주 강세 등으로 상승

### 미국 증시 리뷰

11 일(월) 미국 증시는 CPI, FOMC 대기심리가 상존했으나, 뉴욕 연준의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연중 최고치 경신에 힘입어 강세(다우 +0.43%, S&P500 +0.39%, 나스닥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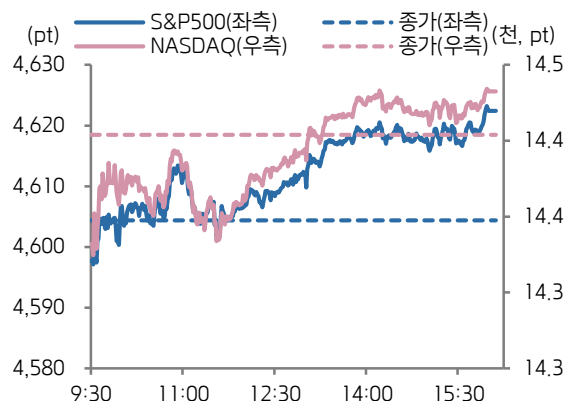
블룸버그에 따르면 BOJ 위원들이 지속 가능한 인플레이션을 뒷받침할 충분한 임금 상승 증거를 아직 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마이너스 금리를 서둘러 폐기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보도에 엔화 급락, 달러 강세 전환. BOJ 는 견고한 임금 상승을 확인하기 위해 더 많은 정보를 기다리고 있으며, 마이너스 금리가 곧 종료될 거란 시장의 기대에도 BOJ 가 이달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존의 통화부양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밝힘.

중국 11 월 소비자물가지수는 YOY -0.5% (예상 -0.1%, 1 전월 -0.2%), 생산자물가지수는 YOY -3.0% (예상 -2.8%, 전월 -2.6%) 감소, 예상치 모두 하회하며 하락세 유지.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 는 YOY 0.6%로 10 월과 동일. 중국의 주택 부동산 침체, 지방정부 부채 급증의 영향으로 내수 소비도 크게 위축됐을 가능성을 시사.

FT 에서 중국이 우라늄에 대한 입도선매 장기 계약을 체결하고 광산을 매입하는 등 핵심광물인 우라늄 확보를 확대하고 있다고 보도. 중국국영우라늄공사(CNUC)와 중국종합원자력그룹(CGN)의 자회사는 니제르·나미비아·카자흐스탄 광산 지분을 이미 매입했으며 특히 CNUC 는 카자흐스탄 국경 옆 신장 지역에 우라늄 거래 허브 역할을 할 창고를 짓고 있다고 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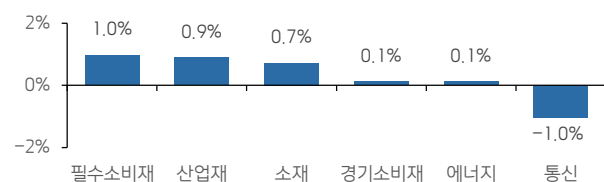
업종별로 필수소비재(+1%), 산업재(+0.9%), 소재(+0.7%) 강세, 통신(-1%), 에너지(+0.1%), 경기소비재(+0.1%) 약세. 애플(-1.29%), 알파벳(-1.26%), 아마존(-1.04%), 메타(-2.24%) 등 빅테크는 약세를 보였으나, 마이크론(3.78%), AMD(4.26%), AMAT(5.02%) 등 반도체주 강세로 나스닥 및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강세. 대형 백화점 메이시스(19.5%)는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운용사로부터 58억 달러, 주당으로는 지난 11 월 30 일 종가 17.39 달러에 프리미엄이 붙은 21 달러에 인수제안을 받았다고 보도 이후 16% 급등. 노드스트롬(7.25%), 콜스(7.04%) 등 다른 백화점 체인 역시 동반 강세. 옥시덴탈(1.04%)은 텍사스 지역내 3 위 민간 세일 시추업체인 크라운록을 120 억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 91 억달러의 채권 발행과 약 17 억달러의 신주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강세.

###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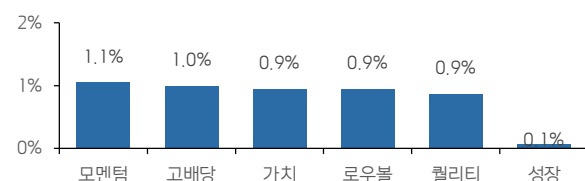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525.36	+0.3%	USD/KRW	1,316.70	+0.74%
코스피 200	337.93	+0.4%	달러 지수	104.09	+0.08%
코스닥	835.25	+0.59%	EUR/USD	1.08	-0.02%
코스닥 150	1,332.19	+0.52%	USD/CNH	7.19	+0%
S&P500	4,622.44	+0.39%	USD/JPY	146.14	-0.01%
NASDAQ	14,432.49	+0.2%	채권시장		
다우	36,404.93	+0.43%	국고채 3년	3.470	+1bp
VIX	12.63	+2.27%	국고채 10년	3.560	+2.6bp
러셀 2000	1,883.68	+0.15%	미국 국채 2년	4.708	-1.3bp
필라. 반도체	3,902.39	+3.4%	미국 국채 10년	4.233	+0.8bp
다우 운송	15,398.23	+1.23%	미국 국채 30년	4.327	+2.3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540.19	+0.37%	WTI	71.32	+0.13%
MSCI 전세계 지수	698.32	+0.34%	브렌트유	76.05	+0.28%
MSCI DM 지수	3,047.21	+0.32%	금	1993.7	-1.03%
MSCI EM 지수	975.01	+0.5%	은	22.77	-0.86%
MSCI 한국 ETF	62.71	+0.88%	구리	378	-1.05%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88%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0.59%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56%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14.76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뉴욕 연은 기대인플레이션 하락으로 인한 11월 CPI 둔화 기대감 유입 여부 2.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등이 국내 반도체주 투자심리를 개선시킬 가능성 3. 전일 급등한 개별 테마주들의 수급 변동성 확대 여부

##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뉴욕 연은의 11월 1년 기대인플레이션(3.4%YoY, 10월 3.6%)은 하락하면서 시장은 금일 밤 발표 예정인 CPI 역시 내림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 중인 모습. 상기 차원에서 11월 CPI 컨센서스도 확인해 보자면, 헤드라인은 3.1%(YoY, 최고 3.3%, 최저 3.0%)로 전월(3.2%)에 비해 둔화될 것으로 형성. 코어는 4.0%(YoY, 최고 4.2%, 최저 3.9%)로 전월(4.0%)과 동일할 것으로 형성되는 등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의 방향성은 우하향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임.

컨센서스는 부재하지만, 파월 의장이 중시하는 인플레이션 지표로 알려진 슈퍼코어 CPI(에너지를 제외한 서비스 물가에서 주거비를 차감)도 하락 기조는 변함없을 것으로 예상(슈퍼코어 물가 YoY, 7월 4.1% → 8월 4.0% → 9월 3.9% → 10월 3.7%로 7월을 기점으로 지속 둔화 중). 이렇듯 11월 CPI가 컨센서스대로만 나오더라도 양호한 증시 환경이 조성될 수 있겠지만, 이번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

첫째, 최근 증시 흐름을 비추어 봤을 때 11월 CPI 둔화 기대감은 일정부분 기반영된 측면이 있기에, 11월 CPI 결과치보다는 이후의 인플레이션 경로로 무게중심이 이동할 수 있다는 것. 위클리에서도 언급했다시피, 클리블랜드 연은에서 제시하는 모델을 따르면 12월 헤드라인 CPI가 3.3%대로 재차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 경로의 불확실성을 단기적으로 증시에 주입시킬 수 있기 때문.

둘째, 뉴욕 연은의 공급난 지수가 11월 +0.11pt로 올해 2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점은 추후 공급단에서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생성될 수 있음을 시사(10월 수치도 -1.74pt에서 -0.1pt로 상향 수정). 다만, 지금은 침체 이슈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수요 측면에서 인플레이션 둔화 압력이 커지고 있는 시기임. 즉, 12월 CPI 상승, 공급난 지수 상승이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의 하락 궤도를 바꿀 동력은 크지 않은 만큼, 이를 노이즈로 받아들이 것이 적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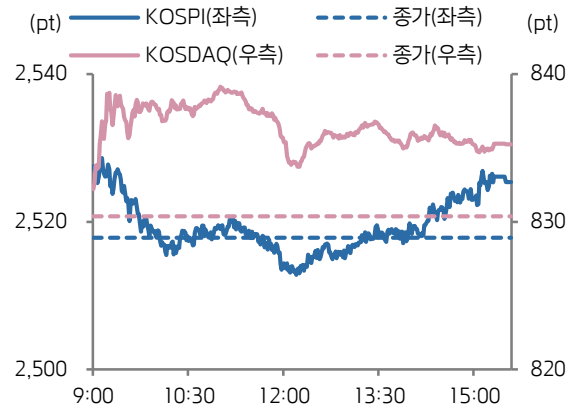
셋째, CPI가 중요하긴 하지만, 시장은 목요일 새벽 결과 발표 예정인 FOMC에 더 주목할 것으로 판단. 시장이 인플레이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근본적인 배경이 연준 정책 변화와 직결했다는 점을 상기해볼 필요. 11월 이후 증시 랠리를 기여한 재료의 무게는 “금리인하 기대감” 인플레이션 하락 기대감이었다는 점도 12월 FOMC의 중요성을 뒷받침. 결국, 상기 세가지 가능성을 고려 시 11월 CPI는 컨센을 대폭 상회 혹은 하회(헤드라인 기준 3.3% 이상 or 3.0% 이하)하지 않는 한, 이번 결과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에 국한될 수 있음에 대비.

전일 국내 증시는 중국의 부양 기대 vs CPI, FOMC 경계심리 등 상하방 요인이 공존한 가운데, 로봇 사업 인수로 상한가를 기록한 LIG넥스원(+29.9%) 등 개별 테마 장세를 연출하면서 상승 마감(코스피 +0.3%, 코스닥 +0.6%).

금일에는 뉴욕 연은의 기대인플레이션 둔화, 11월 CPI 기대감에도, FOMC 경계심리, 애플(-1.3%), 테슬라(-1.7%), 엔비디아(-1.9%) 등 미국 빅테크주 약세, 국내 대주주 양도세 관련 불확실성 등으로 지수 상단은 제한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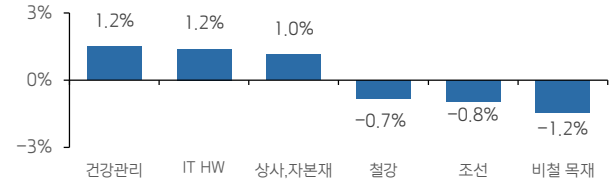
업종 관점에서는 마이크론(+3.8%), AMD(+5.0%), 브로드컴(+9.0%) 등 AI 시장 호조에 따른 업황 호전 기대감으로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3.4%)가 급등했다는 점을 감안 시,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 중심의 업종별 차별화 장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 또 최근 종목들 간 손바뀜이 잦아지고 있는 분위기인 만큼, 금일에는 로봇, 연예인 투자, 양자컴퓨터 등 전일 개별 호재성 테마로 급등한 종목군들의 수급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

### KOSPI & KO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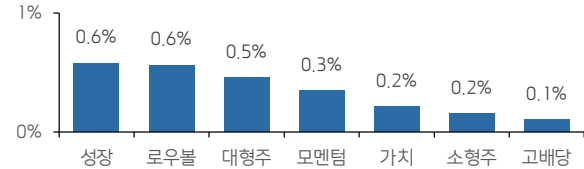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